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4135.00	↑ 코스닥	935.00
	(-8.55)		(+3.65)
↑ 금리	3.095	↓ 환율	1470.55
	(+0.011)		(-1.75)

美서 AI 칩 대량 수주 수율·고객·인력 확대 파운드리 경쟁력 상승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인공지능(AI) 칩 대량 수주와 안정적인 수율을 통해 활기를 찾고 있다. 그간 테일러 랩 가동 지연으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력 보강 등 조직 정비까지 병행하며 우려를 잠재시키는 모습이다.

1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미국 AI 스타트업 '차블라이트 스케일러블 인텔리전스'와 광학 처리장치(OPU) 칩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개발 4nm 공정으로 제작 수율 안정화에 생산안정성 확보 테일러랩 가동 준비도 막바지 인력충원 등 준비태세 나사

해당 칩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4nm(나노미터·10억 분의 1m) 공정으로 제작될 전망이다. OPU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구조 등을 하나의 칩에 담은 차세대 AI 반도체 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의 선주문 물량만 1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4nm 전공정 양산 과정에서 난제를 겪어온 삼성전자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고객사 신뢰를 되찾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파운드리 수율도 60%~70% 사이로 안정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생산 안정성도 확보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테슬라의 AI5 자율주행 칩을 수주하며 대형 고객사 확보와 공정 안정화 작업이 맞물려 생산 체력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테일러랩 가동 준비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테일러 랩 공정률은 93.6%에 달하며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은 지난 7일 파운드리 고객 엔지니어링(CE)분야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직책은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의 공정 기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사업 개발부터 신제품 출시(NPI)/양산 전 과정에서 내부 조직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력 확충이 TSMC의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는 고객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따른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운영 비용 향상으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해당 공장의 공정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핵심 요소는 내년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생산능력이 꼽힌다. 파운드리가 HBM4의 핵심 구성품인 베이스다이를 4nm 공정으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나노 공정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이 곧 양산에 들어가 내년 초 출시를 앞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다. 자사 제품을 직접 수주하는 동시에 2나노 공정 숙련도를 올린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동안 낮은 가동률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최근 선단공정 중심으로 신규 주문이 늘고 있다"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내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산업 세계 2강 도약 생태계 조성”

李 대통령, AI시대 반도체 전략 “재생에너지 풍부 남쪽에 눈길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을 끌고올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대전제다. 파이를 키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며 "전후방 산업,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면 좋겠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특히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인 호남 지역을 거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임… 개인정보 유출 책임

“국민께 실망드린 점 매우 송구” 쿠팡, 美 본사 임원 임시대표 선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쿠팡은 미국 본사 임원을 임시 대표로 선임하며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쿠팡은 10일 박대준 대표이사(사진)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능장 대응 및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경영진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쇄신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의 사임에 따라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최고경영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신임 임시 대표는 미국 본사의 핵심 임원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로저스 대표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의혹 겨냥…“여야 관계 없이 수사”
▲김민석 총리 “쿠팡 문제 심각…법 위반 엄정 조치”
/사진 뉴시스

▲위성락 안보실장, 다음주 방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국방부,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항의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
▲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韓 경제, 내년에 바닥 탈출… GDP 상승률 2%대 전망”

S&P·나신평 공동 세미나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내년 한국경제가 바닥을 탈출해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기업들의 사업재편과 투자 확대 등을 반영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불안한 데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감소된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내년에만 성장률(4.0%)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만에 뒤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2.3% 성장전망, '대만'은 넘사벽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나이스 신용평가와의 공동세미나에서 “내년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신용 여건은 녹록지 않겠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4월 전망 2.0%보다 0.3%포인트(p) 높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도 가장 장밋빛이다.

앞서 피치(Fitch)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지난 6월 전망치(1.8%)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Moodys)는 “내수 회복이 약하지만, 정부의 소비 지원 및 반도체 경기 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올해 1.0%, 내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박준홍 S&P 상무는 “한국 기업들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에서 'NICE신용평가-S&P글로벌신용평가 공동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P, 내년 GDP 0.3%p 올려 2.3% “관세 완화 등 시장 가시성 높아져”

대만 성장률 올해 7.3%, 내년 4.0% AI 급성장에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올해 1인당 GDP 우리나라 넘어설 것

변화하는 글로벌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있다”며 “이는 관세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주요 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S&P가 “올해 전기차 배터리, 화학, 철강 등 7개 기업의 신용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긍정적인 방향의 등급 및 전망 조정은 반도체와 테크 부문 등 단 두 건에 그쳤다”면서 “이는 2020년 이후 한국 기업 신용도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한 해”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초기에 우려했던 관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P가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한국 역시 GDP 성장률이 2025년 1.1%에서 2026년 2.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과의 성장률 격차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추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대만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3%, 4.0%로 전망해 종전보다 각각 2.2%p, 1.7%p 크게 올렸다. 대만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7.6%를 기록하며 당초 추정치(2.9%)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 특히 고성능 인공지능(AI) 컴퓨팅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

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올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공동 세미나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신용 위험”에서 내년에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 신임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 정책 방향 관련 불확실성, 국내 AI 인프라 투자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원화의 구조적 약세 요인 완화 여부 등이 경제 및 금융 시장을 움직일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높은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향후 등급의 변동 요인”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가 한국경제 버팀목

글로벌 신폴사들은 내년도 기업간

“소비자 보호 실패 ‘경영 리스크’ 아닌 ‘생존 리스크’”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간담회 “내부통제 관리에 지주 역할 소극적 리스크 통합적 관리의무 수행을”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와 대형 금융 사고에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소비자보호 실패는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봉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지주사를 대상으로 통할 관리 책임자로서 리스크를 감지·제어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안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이 생산적으로 흐르게 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의 자금공급이 기

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며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사업성 심사·평가를 고도화 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실패는 경영 리스크가 아닌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 손실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만으로 일관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생존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상품의 설계단계부터 어떤 유형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지, 어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지를 꼼꼼히 살펴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적합성 검증에 정교한 기준

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CEO의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금융지주 산하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사안”이라며 “내 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 등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정보기술(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에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n

ADB, 올해 韓 성장률전망치 0.9%로 상향

소비진작·반도체 회복 등 영향 반영 내년 성장률 0.1%p 높여 1.7% 제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씩 상향 조정했다.

ADB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도, 단기 회복세는 기존

전망 때인 지난 9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 대비 0.1%p 올랐다. 내년 성장률 역시 1.7%로 0.1%p 상향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진작,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주요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약세, 글로벌 무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9월 전망치에서 0.2%p 올려 잡았다. 보고서는 내년엔 식료품·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전체 경제는 올해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3%p 상향될 수 있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

출국들의 실적 개선이 성장을 이끄는 구조다.

내년 성장률은 4.6%로 전망해 9월 대비 0.1%p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6%로 0.1%p 하향 조정됐으며 내년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4.6%), 홍콩(3.4%), 대만(7.3%)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동아시아 평균(0.3%)보다 높다. 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실적과 신용도가 차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제열 S&P 이사는 내년 전망에 대해 “산업 간 실적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화학 부문은 공급 과잉 지속과 더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산업은 AI(인공지능) 주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변화 또한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미국의 전기차 보급 둔화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 부정적 요인이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증가는 관련 기업의 실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은 조선 산업 등 여러 국내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도 ‘2026년 신용전망’에서 “내년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경기보다 산업 구조에서 갈릴 것”이라며 석유화학과 건설, 철강, 이차전지, 금융 업종의 내년 신용 전망을 ‘젯벳’으로 예상했다. 이들 업종이 고유가·고환율(원화 가치 하락)·내수부진·글로벌 통상 환경 등의 사중고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익성은 악화하고, 자산 건전성까지 흔들리고 있어서다. 반도체·조선·방산·증권 업종은 햇살이 비칠 것으로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로템

페루에 K2전차 등 수출 195대 총괄합의서 체결

K-방산 수출 신화의 주역인 K2 전차의 두번째 해외수출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및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K808 차륜형장갑차 공급에 대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추후 체결될 이행계약을 통해 페루에 K2 전차 54대 및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를 공급한다.

페루는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강화를 위한 군 현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번 사업 역시 육군 지상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합의서에는 지난해 체결된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에 이어 품목, 물량, 예산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으며 향후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페루의 국가 경제와 방산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페루 측과 함께 조립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 일부를 현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로 페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가 페루에서 원활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장비 획득과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들을 폭넓게 지원해 장기적으로 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방산 허브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I·국방반도체’ 육성 정부, 700조 이상 투입

》1면 ‘반도체 산업…’서 계속

용인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혁신벨트 구축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1조 투자
국방반도체 전주기 기술 자립 추진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 자리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2047년까지 총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용인 일반산단의 1호 팹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6월에는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보상 공고를 진행하는 등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면서,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고, 국비 등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취약점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반도체 설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끌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의 기술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도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전 전주기(소재-설계-공정-시스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의 기반을 닦는다. 광주는 앵커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8인치 SiC 실증팹 구축)를 확충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을 검토한다.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심인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한동훈 ‘당계 논란’ 조사결과 공개 파장

조사 내용에 가족 이름·탈당 시기 포함
당내 일부 의원, 공개 시점에 우려 표시
중간조사 발표가 당 운영·결속에 영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다수인데, 오히려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9일)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기자회견 긴급공지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한동훈 당계 논란”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계(당원게시판)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 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A, B, C의 경우 같은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A, B, C는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장모, 장인의 이름과 같다. 또 한 전 대표의 딸과 이름이 같은 D씨의 경우 재외국민당원이었다는 점도 밝혔다. 이들의 탈당 시기는 지난해 12월 ‘12·3 내란’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였다는 사실까지도 공지에 담겼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민감한 조

사 결과를 감사위원장 개인 명의로 중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의 공지엔 ‘한 전 대표 가족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서울 강남병(한 전 대표 거주지) 소속이었으며, 한 전 대표는 해외 유학 중인 딸이 있는데 딸과 이름이 동일한 D씨가 재외국민당원이라는 점, 이들의 탈당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한 전 대표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중간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친한계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발표’라는 입장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인격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무감사위가)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면서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이라며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우재준 의원도 전날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다. 그렇기에 지난 특검의 압수 수색에서도 모든 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하길 바란다. 충분한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장동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에 참석해 있다. /뉴스시스

여야 강대강 속 본회의만 소집 실질적 민생 입법은 ‘제자리’

민주당, 가맹사업법·민생법안 우선
국힘, ‘8대 악법’ 반발하며 필ib 예고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안 불투명
하도급법·정보통신망법 민생법안 대기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분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지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

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과징금 법안 발의

국회 과방위, 17일 쿠팡 청문회
김범석 의장 등 주요 경영진 증인 채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눈초리가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국회 정부위원회에선 쿠팡을 겨냥한 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차

레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

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급효과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벌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우리 가족의 은퇴설계 · 상속증여 솔루션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IPO 추진’ 케이뱅크, ‘흑자전환’ 토스뱅크

경영안정 위해 첫 연임 CEO 가능성

케이뱅크, 내년 목표로 상장 추진
절차 진행 속 안정적 선택 가능성
비연임 관행에 장담하기는 어려워

토스뱅크, 호실적에 임기연장 전망
최근 내부통제 문제 부담요인 될 듯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 연임 사례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의 12월 31일 임기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행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달 중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추진 등을 앞두고 있어 최 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한국거래소(KRX)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 반드시 상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1월과 2024년 10월, 올해 6월 상장을 추진하다 수요 예측 부진과 고평가 논란 등에 따라 철회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표를 교체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연임 방향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호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128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주춤한 상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손진영 기자 son@

황이지만 대출비교서비스와 플랫폼 광고주의 등 비이자이익이 늘면서 포트폴리오는 탄탄해졌다.

다만 케이뱅크의 ‘비연임’ 관행은 최 행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이후 초대행장인 심성훈 행장이 3년 임기 만료 후 경영안정차원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임기를 연장한 사례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연임한 적이 없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스뱅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인 이달 중 임추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이 대표는 토스뱅크의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어 임기연장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보다 약 136.2% 늘었다.

비이자수익은 1296억원으로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목돈 굴리기(WM) 부문은 누적 연계금액 20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토스뱅크

조원을 돌파하며 9개 제휴사와 2000여개 상품을 연계했고,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

그러나 토스뱅크의 내부통제는 이 대표의 연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6월 재무조직 팀장급 직원 A씨가 법인 계좌에 들어온 세금 환급금 등 회사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토스뱅크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개편한 이후였다. 내부통제부문에서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는 연임 심사 과정에서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장교체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LH, 내년도 토지비축 사업 신청접수

내달 23일까지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공익사업을 도와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2026년 토지비축 사업을 신청받는다.

LH는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토지는 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한다. 보상이 끝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지자체는 공익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보상 관련 수행 조직과 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사업 장기화나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격 정도 줄어든다.

공공비축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사업 선정은 공공토

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LH는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에서 1대1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개편했다.

LH는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개 사업(5.7조 원 규모)을 추진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사공원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 4365억원) ▲7개 산업단지(1조 3505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721억원) 등 총 3.6조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2025년에는 1024억원 규모의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과 220억 원 규모의 KTX 합천역세권 개발이 선정된 바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을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우리금융그룹, ‘기업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AI 경영혁신·ESG 실천 인정 받아

우리금융그룹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ESG 혁신 시상식으로, 산업 전반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금융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한 경영혁신과 체계적인 ESG 경영 실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고객 상담 플랫폼 ‘AI뱅크’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우리GPT’ 등 전 금융 프로세스에 AI를 본격 적용해 운영 중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내년 지방 주택담보대출 2단계 DSR 유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 회의’

전체 가계대출, 지난달比 증가폭 축소
은행권 대출 줄고 제2금융권은 늘어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단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역 주담대 내년 6월까지 2단계 DSR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 적용비율 100%)며 지방은 1.5%(기본 적용비율 50%)다.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

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 내) 감정 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 대출 누르니 2금융권 대출 ‘쑥’

지난 11월 국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 1000억원 증가해 10월(4조 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 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조 1000억원에

서 11월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성 대출(디딤돌·버팀목·보증자리론 등) 증가폭도 10월 9000억원에서 11월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중 2조 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 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 2조 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 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은행권(2조 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1조 2000억원→1조 9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중에 신용대출(9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10월과 같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사절단이 면담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우즈벡, 금융협력 확대 논의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와
韓 기업 진출 확대 등 도모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진옥동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금융을 매개로 한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가 가진 높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PEANUTS®



CHARLIE BROWN ORNAMENT
Sweet Pumpkin Filling



CHRISTMAS WREATH
Pistachio Cream



SANTA BELLY
Vin Chaud Filling



SNOOPY
Hazelnut Chocolate Spread



©2025 Krispy Kreme Doughnut Corporation
©2025 Peanuts Worldwide LLC | www.peanuts.com

기아, 덩치 키운 ‘셀토스’ 물고왔다… 소형SUV 왕좌 탈환 시동

완전변경 ‘디 올 뉴 셀토스’

외관 ‘오퍼릿 유나이티드’ 철학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실내 공간성·파워트레인 다양화
2세대, 개발부터 고객요구 맞춰”

기아의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베스트셀링 모델인 셀토스가 2세대 모델로 돌아왔다. 1세대 대비 차체 크기를 키우고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확보했다.

기아는 10일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이하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아의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인 셀토스는 2019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200만대가 판매됐으며 연간 40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2세대 셀토스는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상품성, 신규 라인업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아가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

기대된다.

우선 외관은 기아 디자인 철학인 ‘오퍼릿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바탕으로 정통 SUV의 단단한 스타일에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더했다. 전면부는 강인하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램프와 일체화된 수직의 그릴 패턴과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첫인상을 완성한다. 후면부는 와이드한 테일게이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램프를 통해 깔끔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디자인 특화 트림인 셀토스 X-라인은 역동적이고 대담한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휠베이스와 전장은 1세대 대비 각각 60mm(2690mm), 40mm(4430mm) 늘어났으며 2열 레그룸은 25mm(990mm) 확장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트렁크 공간은 38리터 확장된 536리터를 제공한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 고객을 대상으로 2세대 셀토스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는데 ‘실내 공간성·파워트레인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2세대 셀토스는 개발부터 고객 요구에 맞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2세대 셀토스를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총 2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한다. 기아는 셀토스에 우수한 연비를 갖춘 1.6 하이브리드 엔진을 새롭게 추가해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기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친환경차 수요가 높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나갈 전망이다.

또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에 실내 V2L(차량 외부 전력 공급)을 적용해 전 기차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전동화 특화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했으며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탑재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93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4WD 모델에는 터레인 모드가 장착돼 다양한 노면

환경에 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기아는 이처럼 차급을 뛰어넘는 제품 경쟁력으로 무장한 셀토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브랜드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셀토스는 언제나 동급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 역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돋보이는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연 43만대로 1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디 올 뉴 셀토스’ 내부 모습.

삼성SDI, 美에 2조 규모 ESS LFP배터리 공급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에
내후년 부터 약 3년간 공급 예정
현지공장 라인전환 제품 생산키로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2조원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삼성SDI는 미주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 SDIA)’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총 2조원을 훌쩍 넘고 오는 2027년부터 약 3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하게 될 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의 라인 전환을 통해

생산될 계획이다.

삼성SDI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가동하고 있으며, 현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현재는 ESS용 삼원계(NCA) 배터리를 생산 중이지만 현지 수요에 맞춰 LFP 생산라인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SDI가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SBB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으로,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이다.

삼성SDI는 그동안 LFP 연구개발(R&D)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소재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소재와 극한 공정 기술을 통해 에너지 밀도까지 보완했다.

업계에서는 파우치형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의 장점과 함께 첨단 안전성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 이번 삼성SDI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성사에 주요했다고 분석한다.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로 돼 있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다.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 등의 안전 장치가 설계돼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로템, 우즈벡 고속차량 초도물량 출고

1편성 당 7량, 총 42량 공급

현대로템이 국산 고속철도차량의 첫 해외 수출로 기록된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초도 물량을 조기에 출고했다.

현대로템은 10일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우즈벡 고속차량 초도 편성 출항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우즈벡 고속차량은 1편성 당 7량, 총 42량 구성이다.

현지 맞춤형으로 궤도 폭이 넓은 광궤용 대차가 들어가는 이 차량은 사막 기후의 높은 고온과 모래바람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방진 설계가 적용됐다. 총 1286km에 달하는 현지 장거리 노선에 투입돼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고속차량 첫 해외 수출임에도 조기 출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30년 넘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 고속차량. /현대로템

게 쌓아 올린 국산 고속차량 제작·운영 경험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최초 국산 고속차량인 KTX-산천부터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KTX-청룡(EMU-320)까지 국가핵심기술이 적용된 고속차량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는 국책 연구과제인 차세대 고속차량 EMU-370 개발까지 완료했다.

/이승용 기자

LG전자, 스튜디오큐브에 LED 솔루션 공급

메인스크린 크기 60m*8m 규모

LG전자가 국내 최대 가상 스튜디오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고화질 LED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른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 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전에 운영 중인 공공 영상제작 인프라 ‘스튜디오큐브’에 새롭게 조성된 버추얼 스튜디오 ‘스튜디오 V’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LED 솔루션(모델명: LBCJ026)을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튜디오큐브는 2017년 대한민국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 스튜디오로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홈 등 수많은 작품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

버추얼 스튜디오는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배경을 구현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세트 제작과 로케이션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줘 영화, 미디어, 광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제품은 메인 스크린 크기만 가로 60m, 세로 8m이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천장 스크린과 이동식 보조 스크린을 합치면 국내 최대 규모인 총 782.5㎡로 65인치 TV를 약 660개 이어붙인 것보다 더 크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케미칼 中 커린러와 합작법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
수직 계열화를 구현한다.

SK케미칼은 중국 커린러와 함께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 원료 혁신센터(FIC)’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중합 등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소싱 설비를 갖춘 법인을 구축하는 것은 SK케미칼이 최초다.

중국 산시성의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 기업 커린러는 10년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해온 기업으로, SK케미칼의 기술력으로 전처리 후 재활용 원료인 PET 펠릿을 생산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항공업계 ‘연말 특수’ 특별기 등 운영

대한항공, 24~31일 마일리지 특별기
아시아나, 하와이 항공권 할인쿠폰

국내 항공업계가 연말 항공기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한다.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특별기를 운영해 성탄절과 연말 맞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항공 여행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부터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단 28일은 운항하지 않는다.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12월 10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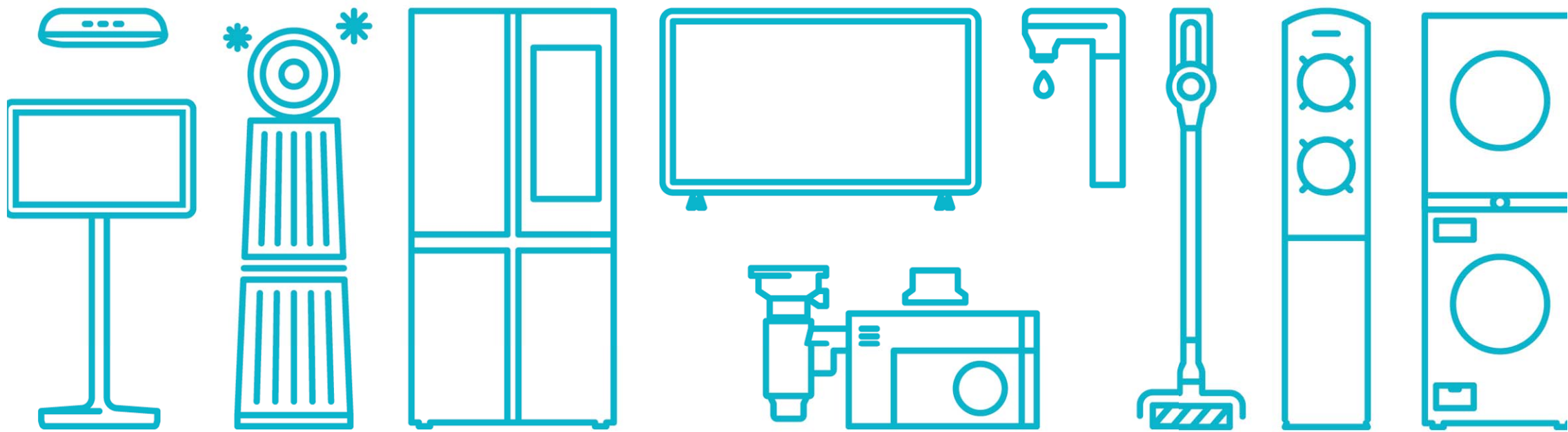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은 겨울철 인기 노선인 미국 하와이행 마일리지 항공권을 오는 21일까지 특별 할인한다. 최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왕복 기준 1만 마일을 차감해주는 마일리지 항공권 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도 특가 경쟁에 나서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4일 자정까지 ‘해피 홀리데이’ 연말 특가전을 열고 국제선 58개 노선의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이스타항공은 방콕, 치앙마이, 다낭 등 동남아 7개 노선에 대한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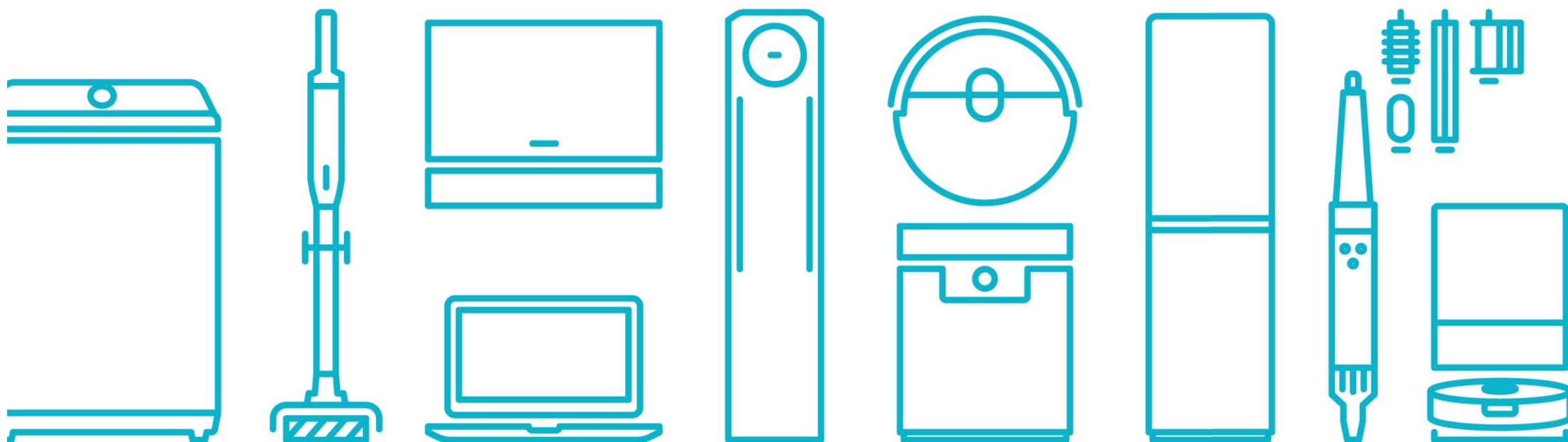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46개국 스타트업 한자리… 2000건 이상 비즈니스 매칭 추진

컴업 2025 개막

올해 슬로건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
한성숙 장관, 사우디 등 협력안 모색
‘K-스타트업 왕중왕전’ 등 행사도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5’가 전세계 46개국에서 275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0일 개막, 사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일본, 호주 등 7개국은 국가관을 운영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첫날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 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AI 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시작해 7회째를 맞은 올해 컴업의 슬로건은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이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기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기업과 대·중견기업 같은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 등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5’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컴업 2025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컴업 2025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타렉 아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선 올해 중기부와 사우디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에 휴메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자국을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5월 설립한 기업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사우디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개막식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타렉 아민 대표는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쌓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AI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연사로 나온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조연사로 참여, 혁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창업가로서의 여정을 공유했다.

컴업에선 또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이터까지 폭넓게 초청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중견기업 총 35개사도 참여,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총 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 스타트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고도화했다. 투자자 부스와 대·중견기업 부스를 운영해 스타트업이 사전 매칭 없이도 이들과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에선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의 창업기획자(AC)로 뽑혀 중기부장관상을 받았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선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역시 중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컴업 기간 중엔 AI 스타트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 개막식’,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을 가리는 ‘2025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등이 펼쳐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이노텍, 스마트 카드시장 본격 공략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 개발 성공 귀금속 도금 공정 없이도 고성능 구현

LG이노텍이 ‘차세대 스마트 IC(직접 회로) 기관’을 앞세워 성장하는 스마트 카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 기술을 강점으로 글로벌 고객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성능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직접회로) 기관’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IC 기관은 개인 보안 정보가 담긴 IC칩을 신용 카드, 전자여권, USIM 등 스마트카드에 장착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사용자가 스마트카드를 ATM, 여권리더기 등에 접촉시키면 IC칩의 정보를 전기신호를 통해 리더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LG이노텍이 선보이는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은 기존 대비 탄소 배



LG이노텍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 /LG이노텍

출을 약 50% 줄인 친환경 제품이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8500톤을 줄여, 약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LG이노텍은 귀금속 도금 공정 없이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이 제품에 적용했다.

기존 스마트 IC 기관은 팔라듐과 금 등 귀금속을 사용해 표면에 도금을 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리더기와 접촉하는 기관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고 안정적

인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팔라듐과 금은 채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재료 가격이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나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 업계 공통의 과제였다.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에는 글로벌 스마트카드 제조 선도 업체에 공급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또한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관’ 관련 국내 특허 20 여건을 확보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에 특허 등록을 추진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KCC글라스, ‘경량다복층유리 시스템’ 개발

4중구조 대비 무게 절반 가까이 줄여

KCC글라스가 다중(3·4중) 복층유리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량 다복층유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10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중간 유리로 2.1mm 두께의 얇은 유리를 적용한 다중 복층유리 구조다. KCC글라스는 관련 기술에 대해 지난해 12월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KS 등 시험성적서를 취득해 성능 검증도 마쳤다.

KCC글라스가 개발한 경량다복층유리 시스템에는 중간 유리로 화학강화 방식의 강화 처리와 단열을 위한 로이(Low-E) 코팅을 입힌 2.1mm 유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내구성과 단열성은 유지하면서도 4중 복층유리 구

조 기준으로 무게를 절반 가까이 줄여 시공 편의성은 물론 창문 개폐성까지 크게 높아졌다. 또한 2.1mm의 얇은 유리에도 로이 코팅을 입힘으로써 복층유리를 구성하는 모든 유리를 로이 코팅이 적용된 유리로 구성할 수 있어 ▲단열성 ▲색상 ▲투과율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물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경량다복층유리 시스템의 핵심은 2.1mm의 얇은 유리에 화학강화 방식의 강화 처리와 로이 코팅을 적용해 다중 복층유리의 구조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라며 “동일한 내구성과 단열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건축용 유리의 경량화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내년 中企 관세·물류 부담 줄인다

수출바우처 등 6867억 투입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내년 총 6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를 중심으로 한 ‘4대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사를 발굴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예산이 226억원 많은 총 1502억원으로 늘어난 수출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한다.

올해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 적용한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 2배 상향(3000만→6000만원) 조치도 연장한다. 지원대상에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포함했다.

‘4대 K-소비재’ 수출 유망기업 500곳 발굴을 위해 올리브영(뷰티), 무신사(패션), 신세계디에프(라이프), 롯데마트(푸드)와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 투자 IR 개최, 지식재산권 매칭 페어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K-뷰티 지역 수출거점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 1~2곳을 선정해 제품 전시, 체험, 바이어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한다. 시범지역은 2030년까지 8곳 정도로 확대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진출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억원 늘어난 198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약 95억원 규모의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도 신설한다.

/김승호 기자

나노캠-위드마스터스, 위생분야 기술 협력

‘가정용 오펜수 시스템’ 개발 MOU

귀뚜라미그룹 전자정밀 계열사 나노캠이 위드마스터스와 ‘가정용 오펜수 시스템 개발 협력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0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나노캠은 위드마스터스가 미국 게이트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발 중인 차세대 위생 시스템 ‘RT(Reinvented Toilet)’ 프로젝트에 주요한 기술 협력을 제공한다. 나노캠은 RT 제작에 필요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배플기, 은나노필름 등 주요 정밀 전자부품을 공급한다. 양사는 이번 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향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귀뚜라미 냉난방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최영환 나노캠 대표(오른쪽)가 김중호 위드마스터스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귀뚜라미

후 RT 기술을 적용한 가정용·반려동물 위생 솔루션 등 추가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여행 플랫폼 기준은 최저가 아니라 콘텐츠·커뮤니티”

속깊은 인터뷰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여행 플랫폼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콘텐츠와 커뮤니티다.”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가 한국형 플랫폼 구조를 앞세운 글로벌 확장을 OTA(온라인여행사)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다.

트립비토즈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예약’이 아니라 ‘경험’이다. 정 대표는 여행 플랫폼을 “최저가를 찾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여행을 선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로 정의한다. 기존 글로벌 OTA가 가격과 검색 효율에 집중해왔다면, 트립비토즈는 영상·커뮤니티·보상을 결합한 콘텐츠 중심 구조로 여행 소비의 출발점을 바꿨다.

정 대표는 이를 ‘한국형 플랫폼’의 진화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디지털 소비 방식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시장”이라며 “빠른 응답 속도, 세심한 UX, 높은 디지털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가 트립비토즈의 기준이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트립비토즈의 첫 화면에는 검색창 대신 숏폼 영상이 노출된다. 사용자는 영상을 보며 댓글로 정보를 교환하고, 영상 속 호텔을 바로 예약한다. 예약 이후에는 동일 지역 여행자들이 모이는



“경험 중심 구조로 여행 플랫폼 재정의 검색 대신 숏폼·커뮤니티로 선택 유도 한국형 소비 방식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 T2E로 콘텐츠·보상 순환 구조 구축 감정·취향 데이터 기반 AI 추천 강화

채팅 커뮤니티가 열리며, 여행 전후의 경험까지 플랫폼 안에서 이어진다.

정 대표는 “여행은 감정적 소비인데, 기존 플랫폼은 이 감정을 거의 다루지 않

았다”며 “트립비토즈는 선택 이전의 선택과 망설임을 콘텐츠로 풀어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K-플랫폼 강소기업

으로서 트립비토즈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정 대표는 “K-콘텐츠와 K-라이프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며 “트립비토즈는 호텔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식 플랫폼 철학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 대표는 해외 진출을 ‘선택’이 아닌 ‘생존’으로 표현한다. 그는 “여행 플랫폼이 한 국가에 머물면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여행 소비 시장은 이미 정체 단계에 들어섰고, 글로벌 확장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트립비토즈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미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삼고 해외 법인 설립, 다국어 앱 출시, 현지 호텔 직접 계약 등 국가별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UAE를 거점으로 한 해외 공급자 확보 전략은 트립비토즈의 또 다른 축이다. 실제로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호텔을 경험하고 콘텐츠로 확산시키는 구조는 해외에서도 통했다. 실제로 트립비토즈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개 호텔을 직접 계약해 최저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한국과 글로벌 사용자에게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트립비토즈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T2E(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서비스) 모

델이다.

여행자가 영상 리뷰나 챌린지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면 보상이 발생하고, 이 보상은 다시 여행 소비로 이어진다. 정 대표는 “T2E는 포인트를 나눠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행 생태계 안에서 소비와 보상이 순환하도록 설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가치와 실제 매출이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 재무적 리스크를 통제했고, 트립캐시는 플랫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재소비된다. 이 구조는 K-콘텐츠와 결합하며 확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인플루언서가 지방 곳곳의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며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고, 해외에서는 K-팝과 K-컬처 팬덤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챌린지로 연결된다.

AI 전략 역시 가격 중심 추천과는 결이 다르다. 트립비토즈는 커뮤니티와 영상에서 쌓인 감정·취향 데이터를 분석해 경험 중심 추천을 구현한다. 특히 가족 셀럽 데이터를 활용한 가족여행 추천은 정확도가 높아 빠른 반응을 얻고 있다.

정 대표가 그리는 트립비토즈의 10년 뒤 모습은 단순한 예약 플랫폼이 아니다. 그는 “여행 정보의 평등과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지속가능성의 출발점”이라며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웹젠

‘디펜스 폭군’ 게임화

웹툰 IP 전략게임 개발

웹젠이 네이버웹툰의 인기작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IP를 활용한 전략게임 제작에 나선다.

웹젠은 10일 네이버웹툰과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IP의 게임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웹젠크레딧스가 개발을 담당하며 웹젠이 국내외 퍼블리싱을 맡는 구조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는 높은 난이도로 누구도 완결하지 못한 게임을 혼자 클리어한 주인공이 게임 속 캐릭터에 빙의된 이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으로, 치밀한 서사와 인물 간 관계 설정, 세밀한 감정 묘사를 통해 소설과 웹툰 모두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다.

웹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해당 웹툰 IP의 게임 제작과 서비스 권한을 확보했다. 웹젠크레딧스는 언리얼엔진5 기반으로 타워디펜스와 던전 오픈스를 결합한 복합 장르 게임을 개발 중이며, 웹젠이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할 계획이다.

게임은 도트 그래픽 기반의 2.5D 아트 비주얼을 적용해 원작 웹툰의 배경과 캐릭터를 구현한다. 여기에 독창적인 기획과 신규 시스템을 추가해 기존 작품과 차별화한 게임성으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구글·삼성 AI 안경 재도전

차세대 플랫폼 경쟁 본격화

제미나이 기반 AI 안경, 내년 출시 오디오·디스플레이형 두 모델 개발 ‘구글 글래스’ 한계 넘는 실사용 전략 배터리·가격·프라이버시가 관건

구글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구글은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는 AI 스마트 안경을 통해 과거 실패했던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다시 도전하며, 모바일 이후 플랫폼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에 AI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며, 하드웨어 개발에는 삼성전자가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 구글은 삼성전자 외에도 글로벌 안경 브랜드들과 협력해 디자인 경쟁력과 착용감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스마트 안경은 두 가지 형태로 개발 중이다. 하나는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등을 탑재한 오디오 중심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렌즈 내부에 정보 표시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모델이다. 길 안내, 실시간 번역, 메시지 확인, 음성 명령 기반 검색 등 AI 비서 기능을 안경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초기 출시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오디오 기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

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술 완성도와 배터리, 착용감 문제를 고려할 때 단계적 출시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 디바이스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이번 행보는 10여 년 전 ‘구글 글래스’ 실패를 딛고 이뤄진 재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글 글래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불편한 착용감,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후 스마트 안경 시장은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성숙을 지켜보며 관망해온 영역이었다.

시장 환경은 과거와 달라졌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고, 경량화된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도 개선됐다. 구글은 AI 기술 성숙도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실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안경”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하드웨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모바일 기기, XR(확장현실) 기기 전반에서 축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구글의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결합 시 시너지가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3G·4G 주파수 재할당 시 5G 단독망 의무화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1.8·2.6GHz는 3년 5G 실내망 구축 시 재할당대가 인센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4G(LTE) 주파수 370MHz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기존 LTE망을 거치지 않는 5G 단독망(SA) 도입을 의무화하고,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브리핑했다. 이날 내용은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날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앞서 공개 설명회에서 공개했던 방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방점에 뒀다. 먼저 정부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2만국 이상 구축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된다. 6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1.8GHz(20MHz폭), 2.6GHz(100MHz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할 때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정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각자 사업 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4G(LTE) 주파수는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를 감안해 2.1GHz 또는 2.6GHz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이용기간 1년이 지난 뒤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뉴시스

NH투자증권, ‘ROE 12%’ 위해 핵심사업 조직개편 단행

〈자기자본이익률〉

리테일, 책임경영 체계·AX 내재화
IB, 기업금융·부동산인프라 분리
운용, 고객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
홀세일, 밸류체인 완결성 확보

전사지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전문성·역량 갖춘 젊은 임원 중용

NH투자증권이 2026년 경영목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12%의 지속달성’을 위한 조직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우선 리테일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책임 경영체계’ 확립 및 AX(AI Transformation) 내재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의 WM사업부와 디지털사업부를 독립적인 ‘책임 경영체계’로 전환하여 채



서울 여의도 있는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NH투자증권

널 별 성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Retail사업총괄부문은 폐지하고 “채널솔루션부문”을 신설해 두 사업부의 상품·컨텐츠 솔루션 제공과 개인·법인 통합 연금사업으로 업무 확장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사업부는 ‘미션 기반의 Cross-functional 조직’ 중심으로 개편해 AX 내재화와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IB부문에서는 핵심 역량에 집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IB1사업부는 기업금융에 전문화된 조직으로서 ‘IB사업부’로, IB2사업부는 부동산과 인프라금융에 전문성을 둔 ‘부동산 인프라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각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조 하금융부의 발행어음 및 퇴직ELB 채권 운용 기능을 운용사업부로 이관해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발생 리

스크를 전면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운용사업 부문에서는 고객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IB사업부에서 이관받은 운용 기능과 대체자산투자 기능을 통합하고 ‘발행어음운용부’를 신설해 통합 운용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고객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모험자본 및 해외사모대출 등으로 투자 스펙트럼을 확장할 예정이다.

홀세일(Wholesale)사업 부문에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밸류체인 완결성 확보를 위해 스왑(Swap)팀을 ‘Swap부’로 개편하고, 홍콩 스왑 데스크(Swap Desk)를 산하로 편입해 스왑 비즈(Swap Biz)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프라임 브로커리지 비즈(Prime Brokerage Biz)의 밸류체인 완결성을 확보하여, 고객 다변화 및 수익구조

안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 지원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개편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리테일-IB-운용-Wholesale’ 핵심사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와 함께 고객자금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구조적인 수익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중용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또 밸류에이션, 절대적·역사적 저평가 국면” ‘고공행진’ 은값, 사상 첫 온스당 60弗 돌파

로베코운용, 내년 경제 단기 반등 전망
美 증시, 금리인하로 강세장 지속 예상
韓, 주식시장 밸류업 가속화 관측
日·中 등 향후 성장성 ‘긍정적’ 제시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 자산운용이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점치며,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겸비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된 ‘2026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수익률은 33.5%로, MSCI 미국 지수 수익률을 16.9% 상회한다.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간사이를 금리인하 이후 통상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감 완화, 관세 불확실성 등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은 “2026년 금융시장의 기회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며 “달러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외 지역의 미국 대비 초과성과 발생 확률이 6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된 ‘2026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간사이를 금리인하 이후 통상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감 완화, 관세 불확실성 등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경은 “2026년 금융시장의 기회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며 “달러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외 지역의 미국 대비 초과성과 발생 확률이 6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시장의 경우, 각 국가별로 다른 베네핏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밸류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크랩 대표는 “한국의 밸류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대비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특히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의 노력은 법제화·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역시 3~4년 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는 미흡했던 인공지능(AI), 민간 설비투자자의 자본 지출 증가를 꼽았다. 크랩 대표는 “산업 구조 재편의 지속과 미흡했던 설비투자·자본 지출 증가로 기업들의 마진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며 “일본 내 과실이 늘고 있는 점도 소비기업 정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주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아세안, 동남아, 중국 등의 향후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개별 종목 중 주가수익비율(PER) 11배 이하 구간에서 전술적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시장 안정성이 높은 선진 시장으로는 싱가포르와 호주를 꼽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美 금리인하 기대·공급부족 겹쳐
재고흐름, 美 핵심광물 등 변수될 듯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구리 가격도 상승세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더해 금과 달리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자금이 몰린 결과다.

9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기준 현물 은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4.5% 오른 온스당 60.77~60.79달러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리값도 급등세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9일 t당 1만14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 초(8800달러대)보다 30% 이상 올랐다.

은값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다. 시장에서는 9~10일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됐다. 금리 인하는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은 같은 귀금속 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은 가격 랠리를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요인은 실물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다. 은은 보석·주화 수요뿐 아니라 전자제품,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돼 공급 확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 수요 급증과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이 겹치며 런던 귀금속 시장에서 이례적인 공급 압박이 발생했다. 이후 최근 몇 주간 런던 금으로 추가 물량이 유입되며 일부 완화됐지만, 지역별 재고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 내 은 재고는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로 전해졌다.

미국 재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지난 10월 기록한 올해 최고치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이 올해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향



은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실버바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후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일부 물량이 미국 내에 묶이며 글로벌 공급 불균형을 더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장외(OTC)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까지 더해지며 가격 변동성은 더욱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지역별 은 재고 흐름, 미국의 핵심 광물 정책 및 관세 이슈가 당분간 은 가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상품·금융 서비스 그룹인 마렉스의 에드워드 메이어 분석가는 “최근 은값 상승세가 가파른 포물선형으로 움직인다”며 “은 랠리가 어디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가격 상승으로 은 상장지수펀드(ETF)가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 ETF’의 1개월 수익률은 20.5%(NAV 기준)에 달한다. 전체 ETF 중 두 번째로 높다. 같은 기간 금 관련 주요 ETF의 1개월 수익률은 2~6% 수준이다.

연말 구리값 랠리가 나타난 것도 ‘공급 부족’ 가능성이 커져서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 통해 “미국 내 재고 증가에 따른 전 세계 구리 부족으로 내년 2분기 구리 가격이 t당 1만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구리에도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기업들이 구리를 미리 쌓아두면서다. /허정윤 기자

업비트, 콜드월렛 보관 비중 99%까지 올린다

현재 핫월렛 1.67%, 콜드월렛 98.33%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10월 말 기준 업비트의 핫월렛 보관 비중이 1.67%라고 10일 밝혔다.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8.33%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했다.

실제 업비트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가장 낮은 핫월렛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른 거래소들이 82~90% 수준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한 반면,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자산 가격 상승과 신규 거래지 원 확대로 입출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비트는 고객 자산 보호에 매진하며 핫월렛 비중을 2% 미만으로 견고하게 유지했다. 이에 더해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韓, 亞 최초 ‘유엔해양총회’ 개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뉴욕총회 참석
결의안 설명 등 각국 지지 이끌어
“韓 해양기술·정책 세계에 알릴 것”

한국이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제4차 UN(유엔·국제연합)해양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이 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일(미동부시간)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 기권 0표로 채택됐다.

이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1만5000여 명이 모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대목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것. 이에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엔해양총회는 그동안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4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결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총회 개최지로 한국과 칠레가 뽑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전 고위급 행사가 2027년 칠레에서, 본회의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해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뉴욕 총회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막판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해수부는 유엔해양총회가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 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분야 국제논의를 지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산업부, 한·미 비관세분야 협상 역량 집중

車·농산물 등 현안별 대응책 강구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듈형 신 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개막

농림축산식품부 최신 R&D 성과 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최신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농업,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10일 개막했다. AI농업혁신, 대체식품, 리버스에이징, 디지털육종, 극한환경농업, 애니멀 웰케어 등 6개 분야에서 1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연구개발 성과와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혁신존에는 2026년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을 수상한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그 성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수직농장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미래성장포

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진출과 상용화 컨설팅 등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조강연은 바둑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이세돌 울산과학기술훈원(UNIST) 객원교수가 맡았다.

개막식에서는 ‘제28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산업포장은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광원 요소기술을 개발한 ㈜셀파스 페이스 윤좌문 대표와 수용성·무독성 산불지연제를 개발한 대명하이테크㈜ 박종빈 대표가 차지했다.

박정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과학기술대전이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 농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중앙회 “영농부산물 파쇄 도와드려요”

소각없는 농촌문화 정착 앞장

농협중앙회가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적극 참여한다. 농협은 ‘소각 없는 농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쇄 주간은 산불 예방을 위해 범농업계가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농협은 영농 현장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농협 임직원 약 2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파쇄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농협에서는 파쇄 주간 동

안 보유 중인 파쇄기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모품·오일 교체 등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 파쇄기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에는 구입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함으로써 장비 확충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농협은 관련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국 농협 ATM기와 공식 모바일 앱 ‘NH오늘농사’를 통해 이번 파쇄 주간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역농협 역시 소각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조합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범정부 해상풍력보급가속 TF 2차 회의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GW 이상 보급

연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발족
미래에너지펀드 등 금융 지원 검토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의 저해 요소로 꼽혀 온 기반시설 부족, 금융조달 난항 등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25GW(기가와트) 이상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전담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사실상 목포신항 1곳뿐이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공공 투자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의 확보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도 확보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 작전성 협의도 정비한다.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 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 경쟁 입찰은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한다.

또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한다. 이를

토대로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입지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6.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약기간 연장, 물가 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한다.

이 밖에 정부는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발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기준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경우 해상풍력 발전단가 역시 kWh(킬로와트시)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

한정동 아동문학상

관객 평점 **9.9**, **120만** 독자의 선택
웃음 빵! 재미 팡! 가슴 뭉클!! 올 겨울 꼭 봐야 할 뮤지컬!



뮤지컬

가슴아들어주는 아이들

20개월 이상 관람가

2026.01.03~02.08 능동 상상나라극장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음CIL 마케팅 두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예매 NOL ticket 문의 02-764-9102

경북도, NEAR 통해 지방의회 협력체계 첫 구축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
경주시 다자와 양자 교류 확대
기후·AI 대응 협력 기반 마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후원한 '2025 NEAR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21개 지방의회 대표단과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회가 NEAR 협력체계에 공식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지방의회 세션, 1:1 교류, 문화탐방,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의회 대표단과 주한 외교단을 만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NEAR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 교류와 이해가



‘2025 동북아 지방의회협력 국제포럼’이 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환영사,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주한 러시아대사, 주부산 중국·카자흐스탄 총영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환영사에서 "NEAR는 지난 29년 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성만 의장은 "성장 잠재력과 도전이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경험 공유와 공존 모

색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외교 대표들도 "NEAR는 지난 29년간 지역 간 신뢰를 쌓고 동북아 발전을 이끌어 온 굳건한 협력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의회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지방의회의 구성과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EAR 사무국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간 다자교류와 함께 총 7건의 양자 교류도 추진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NEAR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NEAR가 미래 동북아 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1996년 창설된 동북아 최대 지방정부 협력 기구로, 현재 9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는 초대 의장 단체로 NEAR 설립을 주도했으며, 2005년 포항에 상설사무국을 유치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metroseoul.co.kr

“일하는 방식·소통 방식 혁신” 선언

박남식 신임 포항제철소장 취임
실행형 안전관리 구축에 역량 집중

박남식 제26대 포항제철소장이 공식 취임했다.

박남식 신임 포항제철소장은 9일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포항제철소가 중대한 번곡점을 맞이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안전, 소통, 혁신,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철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행 중심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제 내재화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의 대전환 ▲중대재해 제로화 및 설비 강건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철소 구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소장은 무엇보다 제철소의 일상 속에서 안전이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 확립을



9일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박남식 제26대 포항제철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지역사회에 안정적 성장으로 보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소장은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항제철소 공정품질서비스실, 수주공정물류실, 글로벌마케팅조정실 그룹장 등을 거쳤으며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부장, 판매생산조정실 실장, 포항제철소 공정품질담당 부소장을 역임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여수’ 선정

민간 8000억 포함 총 1조 규모 추진

전남도는 해양수산업의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여수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월 서면평가, 현장평가, 11월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은 800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사업비 2000억원을 더해 총 1조원 이상 규모로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7월에 2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개소를 선정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무술목, 경도, 돌산 우두,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100만 평에 총 1조 980억 원(민간 8980억원·국비 1000억원·지방비 1000억원)을 투입해 아쿠아마린파크, 플로팅 웰니스파크, 복합크루즈 환승센터, 스마트해양레저지원센터, 호텔·콘도 등 관광형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전남=양희성 기자 ysteven@

김해-中 라이시, 경제·산업 협력 확대 논의

제조·투자 분야 교류 확대 방안 협의

김해시는 중국 산둥성 라이시시 대표단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김해를 찾아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쉬 동 후이 라이시시 부시장을 포함한 5명의 방문단은 8일 흥태웅 김해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9일에는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니크의 생산 시설을 견학하며 유니크의 중국 청도공장 내 생산라인 신설 가능성을 논의했다.

라이시시는 산둥성 칭다오시 산하 현급 도시로 면적 1522㎢에 72만 명이 거주한다. 산둥반도 중부 교통 요충지

에 있는 개방 도시로 해외 투자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농업 및 관광업도 발달해 김해와 비슷한 균형 발전 모델을 보이고 있다.

양 도시는 1997년 10월 우호 협정 체결 이후 문화·행정·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도 2023년 라이시 시장, 2024년 라이시 부시장인 김해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흥태웅 김해시장은 "산업 경쟁력을 갖춘 라이시시와의 이번 교류로 협력 범위 가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확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울릉군, 자체 생산 홍해삼 15만 마리 방류

자연산 채란·부화로 고생존 종자화

울릉군은 지난주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대하·학포 어촌계 마을어장에 홍해삼을 방류한 데 이어, 9일 남양어촌계 마을어장에 자체 생산한 어린 홍해삼 약 1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홍해삼은 올해 초 울릉도 연안에서 채집한 자연산 홍해삼으로부터 채란·부화로 울릉군 수산종자배양장에서 약 7개월간 성장시킨 체중 1.0~7.0g의 건강한 종자로, 수산물 전염병 검사도 통과해 울릉도 해양환경에서 높은 생존율이 기대되고 있다.

울릉군은 이와 함께 수심 30m 이하에 서식해 양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불불락(일명 '메바리')을 올해 전국 최초로 1만 마리 양식하는 데 성공했으며, 향후 생산량 확대를 위한 연구도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마을어장에 자체 생산한 어린 홍해삼을 방류했다.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릉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해 동해안 해삼양식 육성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적지 조사, 인공구조물 설치, 해조림 조성, 해양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식지 조성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울릉(경북)=박병률 기자 pbr34@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3곳 선정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서 통영시, 밀양시, 하동군 등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7개소 중 경남이 3개소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3개 지역은 국비 20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통영시는 '음악이 흐르는 도전, 마을이야기에 윤이상을 입히다'를 주제로 도전동 일원에 지능형 기둥을 설치하고 IoT 생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보행로에는 폭염과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스마트 안개 분사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개소

울산시는 전국 최초 '주거특화형 청년지원센터' 개소식을 지난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1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청년들의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협력해 조성한 민관 협력형 공간이다.

울산 달동에 있는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내 유희공간(43㎡)을 활용해 소통·휴게 공간, 상담실, 공유 주방, 소규모 원격근무 공간 등을 마련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군산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장 시동

군산시가 물놀이·레저 전문기업 ㈜조이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공식 체결하면서 오는 2026년 6월 정식 개장의 시작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는 ㈜조이는 내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6월 정식 개장, 향후 3년간 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

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위탁 범위와 운영 방식, 서비스 품질 기준은 물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청결 유지 방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영양군

내년 국도비 1529억 확보

영양군은 국회정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며 2026년도 역대최대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국비 1,121억 원, 도비 408억 원 규모로 총 1529억 원 규모로 2025년 1413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영양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국도비 확보보고회를 개최하고 임종득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부처와 국도비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였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62억, ▲동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49억, ▲지방소멸기금 120억 등의 국도비를 확보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식품기업, ‘기존 역량활용’ 외식브랜드로 성장한계 돌파

매일홀딩스, ‘폴바셋’ 추가 출점
샤브샤브 등 외식 브랜드 운영

남양유업, ‘백미당’ 실적 견인
매장 확대보다 경쟁력 강화 초점

교촌에프앤비, 포트폴리오 확대
bhc, 셰프 협업… 브랜드 고도화

식품 기업들이 제조업 성장 한계에 부딪히자 외식업을 새로운 수익 축으로 키우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지형 재편으로 우유·가공식품 중심의 제조 사업이 둔화하자 자체 외식 브랜드 개발과 사업 확장을 통해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먼저, 구조적 하락세가 뚜렷한 유제품 시장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출생아 수 감소와 가정 내 소비 축소가 맞물리면서 수요 기반 자체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서다. 우유 소비는 1인당 기준으로 10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 급식 축소와 대체 음료 확산이 겹치면서 회복의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황이 이러하자 매일유업 지주사 매



백미당 학동역점.

/남양유업



메밀단편.

/교촌에프앤비

일홀딩스는 외식사업 자회사 엠즈씨드를 통해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 핵심 상권에 커피전문점 ‘폴바셋’ 매장 6곳을 추가 출점한다고 최근 밝혔다. 폴바셋 매출은 지난해 1599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매일홀딩스는 ‘더키친 일베르노’, ‘크리스탈제이드’ 등 외식 브랜드도 운영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식당 상하’를 론칭해 청담에 1호점을 열었다. 지난해 인수한 베이커리 브랜드 ‘밀도’와의 협업도 강화하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남양유업도 외식사업을 주력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대표 사례다. 남양유업은 우유·기타 제품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이 실적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백미당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01억원, 영업이익은 8억원으로 전체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백미당을 제외한 외식 브랜드를 모두 정리하고자 회사 ‘백미당아이앤씨’를 신설해 전문 운영 체계를 갖췄다.

백미당은 매장 수 확대보다 매장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들어 LF스퀘어 광양점, 서울 도

심공향점, 커넥트현대 청주점, 스타필드 안성점 등 유동 인구가 높은 핵심 상권에 잇달아 출점했으며, 용산 아이파크몰·당산점을 베이커리 특화 매장으로 운영해 브런치·스프·샌드위치 등 메뉴도 확장하고 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역시 외식 포트폴리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촌은 지난해 2월 메밀요리 브랜드 ‘메밀단편’ 1호점을 여의도에 연이어 올해 4월 강동에 2호점을 추가했다. 최근에는 자체 소스 노하우를 활용한 델리 브랜드 ‘소식’을 판교 본사 1층에 선보이며 파일럿 외식 브랜드 실험에

도나섰다. 저녁 시간과 점심 시간, 보다 다양한 고객층을 만나기 위한 전략이다.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드그룹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 외연을 확장 중이다. 최근에는 급식 분야 전문 셰프인 이미영 셰프와 협업해 큰맘할매순대국 신메뉴를 출시하는 등 브랜드 고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식품 제조업 중심에서 외식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은 내수 부진 속에서 기업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소비가 구조적으로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조 역량만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브랜드 자산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외식업으로 전환하면 수익 구조 다각화는 물론, 소비자 접점을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사업군을 넓히는 게 아니라 식품 기업들이 가진 공급망과 연구개발 역량을 ‘경험 기반 서비스’로 재해석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저당 닭가슴살로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

CJ제일제당 ‘The더 건강한’ 신제품
데리야끼, 숯불치킨맛 2종 선보여
하루 단백질 섭취량 38% 이상 충족

CJ제일제당의 육가공 브랜드 ‘The더 건강한’이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은 “The더건강한 저당 닭가슴살”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데리야끼맛’과 ‘숯불치킨맛’ 2종으로 각각 단백질 21g과 23g을 함유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38% 이상을 충족한다. 또한, 닭가슴살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맛의 다양한 소스를 입혀 맛있

고 건강한 식생활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CJ제일제당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체당 소재를 조합해 당류 함량이 2g인 ‘저당’ 제품으로 설계됐다. 볶은 야채와 간장의 풍미를 살려 자연스럽게 달콤하고 짭짤한 맛의 특제 소스를 사용하고, 깨를 더해 먹음직스러운 외관을 완성했다. 직화 오븐에서 구워 그윽한 숯불향과 함께 육즙이 가득한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했으며, 냉장 제품으로 출시되어 더욱 신선하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다.

‘The더건강한’은 지난 7월 리뉴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함’을 담은 브랜

드로 재정비하며,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The더건강한 닭가슴살 제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의 온라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며 닭가슴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당소스를 입혀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The더건강한 닭가슴살 신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헬스앤웰니스(H&W) 트렌드에 발 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나라셀라, 美 가성비 와인 ‘조쉬셀라’ 선택

美 테이블와인 1위 브랜드 국내 첫선

국내 와인 유통업계 최초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미국 프리미엄 테이블 와인 판매 1위 브랜드 ‘조쉬 셀라(Josh Cellars)’(사진)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조쉬 셀라’는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셉 카(Joseph Carr)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조쉬(Josh)를 기리기 위해 선보인 와인 브랜드로, ‘정실함·겸손·가족애’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부드럽고 풍부한 과일향과 친화적인 스타일, 뛰어난 가성비비를 앞세워 ‘데일리 프리미엄 와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미



국내 11~15달러 테이블 와인 시장 판매 1위를 비롯해 카버네 소비뇽 오프라인 판매 1위, 샤도네이 판매 2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국내에 선보이는 ‘조쉬 셀라’ 와인은 대표 3종을 포함해 총 9종의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신원선 기자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 파트너사와 첫 공식 간담회

‘롯데마트&롯데슈퍼 파트너스데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2026 롯데마트&롯데슈퍼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파트너스 데이는 주요 파트너사 CEO 및 임원을 초청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다지는 자리로, 이번 행사는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신임 대표가 주관한 첫 공식 간담회다.

이날 차 대표는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년도 핵심 전략으로 ▲해외 사업 확대 ▲온라인 그로서리 강화를 제시했다. 그간 다져온 그로서리 통합 시너지와 상품 경쟁력을 발판 삼아 미래 성장 동력을 확



보통병커 비스트로에서 진행된 2026 롯데마트&롯데슈퍼 파트너스 데이에 참석한 차우철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왼쪽) 모습.

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K-푸드 기반의 그로서리 전문점 전략을 강화한다.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점포 리뉴얼과 함께 국내 우수 파트너사의 해외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수출

판로를 넓혀 파트너사 수익 창출을 돕는다. 동남아와 중동 지역 공략을 위해 할랄 인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파트너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의 혁신을 예고했다. 내년 상반기 부산에 영국의 오키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적용된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오배송, 품질 등 기존 온라인 장보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기반 앱 ‘롯데마트 제타(ZETTA)’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차우철롯데마트·슈퍼대표는 “급변하는 리테일 환경에서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컬리 큐레이터, 월 거래액 20억 돌파

제휴 마케팅 론칭 11개월 만의 성과
유입 누적 방문자 수 350만명 달해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컬리 큐레이터’가 론칭 11개월 만에 월 거래액 2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컬리는 자사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컬리 큐레이터’의 성과를 10일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 컬리 판매 상품의 링크를 자신의 SNS 등에 공유하고, 해당 링크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구매가 발생하면 리워드를 받는 방식이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큐레이터 제휴 링크를 통해 컬리몰에 유입된 누적 방문자 수는 350만 명에 달했다.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자연스라

운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링크가 생성된 인기 상품은 ‘압구정주꾸미’ 주꾸미 북음으로 나타났다.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는 ‘Kurly’s(컬리스)’ 국산콩 두부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KF365’ 무농약 국산콩 콩나물, ‘연세우유x마켓컬리’ 전용목장우유, ‘Kurly’s’ 애호박 등 일상 장보기 품목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컬리몰 내 ‘마이컬리’ 메뉴에서 운영 중인 SNS 채널 URL을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활동할 수 있다. 큐레이터는 채널 영향력에 따라 ‘1star’와 ‘2star’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차등화된 리워드를 받는다. 또한 단순 링크 공유를 넘어 공동구매나 체험단 등 전용 이벤트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손종욱 기자

매장 곳곳 ‘O4O’ 기술 도입… 온라인 무신사를 현실로

(Online for Offline)

Q프로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

1000평 규모… 200개 브랜드 입점
매장 내 모든 상품에 QR코드 부착
후기 확인 등 온라인 경험 이식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 2층. 거대한 규모의 패션 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신사가 온·오프라인 역할을 결합해 선보인 첫 번째 ‘메가스토어’, 바로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이다. 이달 11일 문을 여는 이 공간은 약 1000여평(3300㎡). 기존에 있던 세 개의 브랜드 매장을 합친 압도적인 규모로 무신사가 전개하는 오프라인 매장 중 가장 크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닥의 색깔이었다. 무신사는 넓은 공간을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바닥재를 달리하는 전략을 썼다. 흰색 바닥은 입점 브랜드를 큐레이션한 ‘무신사 스토어’ 구역, 회색 타일 바닥은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 구역이다. 하나의 매장 안에 두 개의 매장이 공존한다.

흰색 바닥의 ‘무신사 스토어’ 존은 마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 존.



무신사 스탠다드 우먼 존.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존.

/손종욱 기자

치 온라인 무신사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했다. 약 200여 개의 입점 브랜드가 카테고리별 전문관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입구 전면에는 스포츠 전문관 ‘무신사 플레이어’가 자리해 야구, 축구 등 인기 유니폼 팝업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지는 ‘무신사 슈즈’ 존은 중앙 에스컬레이터 입구 전면에 배치되어 강력한 시각적 임팩트를 주었다. 이곳은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무신사의 정체성을 상징하듯 300여 종의 스니커즈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밖에도 1020 여성 팬덤이 두터운 ‘무신사 겔즈’, 포멀한 감성의 ‘무신사 우먼’, 자체 뷰티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무신사 뷰티’ 등 세분화된 큐레이션

이 돋보였다. 이번 매장은 오프라인 사업의 새로운 실험실로 검증된 카테고리인 향후 단독 오프라인 매장으로 독립해 문을 연다. 내년 1월 홍대에 열릴 스니커즈 전문관 ‘무신사 킥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발걸음을 옮겨 회색 바닥의 ‘무신사 스탠다드’ 구역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단순한 의류 매장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공간이다. 남성, 여성 의류는 물론이고 키즈, 뷰티, 스포츠 라인까지 무신사 스탠다드가 보유한 모든 카테고리가 집결해 있었다. ‘무신사 스탠다드 홈’ 존은 패션에 관심 많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겨냥해 헤어드라이어, 섬유유연제, 이염 방지 시트 등 실용

적인 생활용품을 비치해 브랜드의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용산 메가스토어의 핵심은 ‘O4O(Online for Offline)’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매장 내 모든 상품 탁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하면 무신사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 후기를 확인하고, 개인의 회원 등급에 따른 할인가를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온라인의 방대한 정보와 혜택을 오프라인 쇼핑 경험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무신사가 첫 메가스토어의 입지로 용산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KTX와 공항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주말 유동 인구가 40

만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용산은 1030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모이는 곳”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해 있는 만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쇼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이번 용산점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32호점까지 확장한 가운데 성수동 대림창고 인근에 약 2500평 규모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내년 웰니스 시장 본격 진출

신규 플랫폼 ‘올리브베러’ 론칭 예정
잘 케어하기 등 6대 영역 상품 구성

올리브영이 K-뷰티를 넘어 웰니스(Wellness)까지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인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내년 1분기 국내 최초의 옴니채널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Olive Better)’를 론칭한다고 10일 밝혔다.

몸과 정신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는 이미 글로벌 리테일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내국인과 방한 외국인 모두 K뷰티 중심 소비에서 건강기능식품, 위생·헬스케어, 릴랙싱 굿즈 등 웰니스 전반으로 지출을 넓히는 추

OLIVE BETTER

올리브베러 BI.

세다.

‘올리브베러’는 올리브영이 보유한 온·오프라인의 풍부한 고객 데이터 자산과 상품·카테고리 큐레이션 노하우, 옴니채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잘 먹기(이너뷰티 푸드, 건강간식 등) ▲잘 채우기(영양제 등) ▲잘 움직이기(보충제, 운동용품 등) ▲잘 가꾸기(아로마테라피, 더마코스메틱 등) ▲잘 쉬기(수면용품, 허브티 등) ▲잘 케어하기(구강·위생용품 등)의 6대 영역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올리브베러 오프라인 1호점은 서울 강

북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광화문에, 2호점은 서울 핵심 상권인 강남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직장인과 내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에 매장을 배치했다.

올리브영 온라인몰에도 올리브베러가 앱인앱(App-in-App) 형태로 구현된다. 향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콘텐츠 마케팅과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리브영은 K뷰티에 이어 K웰니스를 대표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올리브베러를 신진 K웰니스 브랜드의 테스트베드이자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방한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식 웰니스를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벤티지랩, ‘IVL3001’ 글로벌 2상 진입

(안드로겐형 탈모 치료제)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 IND 신청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글로벌 탈모 치료제 개발에 본격 나선다.

인벤티지랩은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GA)에 안드로겐형 탈모(남성형 탈모) 치료제 ‘IVL3001’의 임상2상 시험계획(IND) 신청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IND 신청은 글로벌 기술이전 및 임상 개발 전략에 따라 탈모 환자에서의 유효성 평가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임상은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IVL3001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약동학·약력학(PK·PD)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3상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회사는 월 1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제형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대응제약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며 사업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글로벌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다국가 임상 전략을 수립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식약처 IND 신청도 진행해 국내 및 해외 4개 기관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협상에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는 “IVL3001은 남성형 탈모 치료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라며 “대응제약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며 위더스제약에 구축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이전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CGV

15일 ‘홍스엑’ 리뉴얼 오픈

CGV는 오는 15일 홍대 스크린엑스(SCREENX)관(일명 홍스엑)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홍스엑은 스크린·음향·좌석 등 전반에 걸쳐 상영 환경을 업그레이드했다. 좌·우 윈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브라이트 윈스크린(Bright Wing Screen)을 도입해 화면의 밝기와 선명도를 강화했다. 또한 전 좌석에 리클라이너를 도입해 관람 편의성과 몰입감을 한층 높였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겨울 기대작 ‘아바타: 물과 재’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에이피알, ‘美 블프’ 판매실적 신기록

판매지표, 전년대비 3배 이상 성장

에이피알이 미국 최대 규모의 연말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에이피알은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메디큐브’와 ‘에이프리스킨’이 미국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판매 지표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메디큐브는 K-뷰티 인기를 견인하며 ‘뷰티&퍼스널케어(Beauty&Personal Care)’ 카테고리 베스트 셀러 10위권 내에 4

종, 50위권 내에 7종을 올렸다.

미국 대형 뷰티 전문 편집숍 울타 뷰티에서도 전월 선행 행사 대비 약 30%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며,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제품 체험 기반 신규 고객 유입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미국 주요 유통 채널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스킨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팜베이직’ 출시

동아제약은 약국 전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팜베이직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팜베이직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요 건강 카테고리 8종으로 구성됐다. ▲눈(루테인시아잔틴) ▲혈행(오메가-3) ▲장(프로바이오틱스) ▲종합영양(멜티비타민·미네랄) ▲간(밀크씨슬 &비타민B복합) ▲혈압(코엔자임Q10 복합) ▲관절&뼈(보스웰리아 복합) ▲혈당&체지방(카테킨&마나바 복합) 제품이다.



‘팜베이직’ 제품군.

/동아제약

모든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30일분 규격이며 1일 1회 1정(캡슐·포) 복용 체계로 통일해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세경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카카오, 시니어 디지털 역량 강화 나선다

카카오는 10일 소비자재단, 카카옴팩트와 함께 시니어 소비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카카오



효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억 기탁

효성이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효성은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 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평소 “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



광동제약, 기업혁신대상 산업부장관상 수상

광동제약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32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 노력과 투명한 ESG 정보공개,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 경영 실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동제약



하나금융그룹, ‘JOB 매칭 페스타’ 성료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5년 제5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올해 5개 거점 도시에서 진행된 전국 순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의 일환이다. /하나금융그룹



KB국민은행, 서울시와 ‘어린이 정원 조성’ 협약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서울시장에서 서울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2026년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스타프렌즈 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가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정원을 꾸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정원 축제이다. /KB국민은행

한국GM, 서비스·품질 강화… 내수시장 의지 재확인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강화 고객케어·기술지원 확대 추진

한국GM이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와 품질 강화에 힘을 쏟는다.

한국GM은 지난 9일 인천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전국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력 서비스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내수 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진행됐으며,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을 비롯해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등 주요 임직원과 전국 협력 서비스 및 판매



한국GM 임직원들과 전국 협력 서비스센터 및 판매 네트워크 대표들이 지난 9일 인천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협력 서비스 중심의 운영 체계 강화를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GM

네트워크 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은 2026년 판매 계획 및 서비스 통합 전

락을 발표하고, 네트워크 강화, 고객케어 향상, 보증·기술 지원 체계 개선, 부품 공급 안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소개했다.

현대차 ‘판매 8000대’ 주인공 탄생

30년 꾸준한 영업 활동의 결실 전국판매왕 17년 연속 기록 보유

현대자동차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한 영광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현대차는 서대문중앙지점 최진성 영업이사가 최초로 누적 판매 8000대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1996년 입사한 이래 약 30년 간 연평균 267대를 판매한 최진성 영업이사는 지난 2018년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해 ‘판매거장’ 칭호를 획득했고, 지난 2023년 6월 역대 두 번째로 누적 판매 7000대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아니라 연간 판매대수에 따라 전국 1~10위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전국판매왕’에도 17회 연속 선정됐다.

최진성 영업이사는 누적 8000대를 판매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1998년 교통사고로 3번의 수술을 받으면서도 의사와 환자들에게 차량을



최진성 영업이사가 현대차 서대문중앙지점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현대차

판매하는 등 한결 같은 꾸준함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이라며 “매일매일 밥 먹듯이 판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 영업이사는 8000대 달성의 포상금인 2000만원을 출신 고등학교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앞장선다. 최진성 영업이사가 출신 고교에 기부한 금액은 20년간 누적 1억 4000만원에 달한다. /양성운 기자

하이트진로음료, SNS 최우수상 따냈다

‘커뮤니케이션대상’서 수상 ‘진로낮카밤바’ 세계관 기반 호평

하이트진로음료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 부문 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5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어워드다.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후원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다양한 브랜드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한 ‘진로 낮카밤바’ 콘셉트를 통해 SNS 채널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바’라는 생

활 밀착형 트렌드에 기반한 설정과 캐릭터 ‘초보사장 진로니’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브랜드에 대한 친근감과 몰입감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다. 또한 밈(MEME) 콘텐츠, 캐릭터툰, 예능형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 실험을 통해 브랜드 고유의 톤앤매너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SNS 환경에 최적화된 메시지 전달 방식을 선보인 점이 이번 수상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특히 세계관 기반 SNS 운영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소비자가 브랜드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방식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고민 상담형 숏폼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글로비스, 봉사·기부로 지역 상생

난곡동 홀몸 어르신 찾아 물품 전달

현대글로비스는 연말을 맞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일대 홀몸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겨울철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말벗 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9일 관악구 내 홀몸 어르신 400가구를 대상으로 목도리 등 방한용품과 간편식·즉석식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또 이와 별도로 현대글로비스는 본사가 위치한 성수 지역의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는 김장김치도 기부했다.

기부된 김치는 돌봄이 필요한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현대글로비스 ESG 경영 방향성의 한 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비록 단 하루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푸근하고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별세

‘황혼열차’로 데뷔해 700편 출연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일군 배우 김지미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지미는 최근 미국 LA에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뒤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리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누린 김지미는 1957년 고등학교 시절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해 700여 편



의 영화에 출연했다. ‘토지’(1974·김수용), ‘길소뜸’(1985·임권택) 등 국내 거장 감독들과 호흡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또 1900년대에는 배우이자 제작자로 ‘지미필름’을 설립 활동하며 한국 영화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한국영화인협회는 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을 준비중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인사

◆경기 포천시 △북지정책과장 정무진 △농업정책과장 양성이 △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은경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송보경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정화순 △일동면장 직무대리 이경재 △창수면장 직무대리 김주연

◆NH투자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중서부본부장 황태석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 이실 △정보보호본부장 이선규 △IT본부장 박기춘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노상인

부음

▲이한진(향년 86세)씨 별세, 오유교(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기자)씨 조모상 = 9일 오전 7시 46분,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11일 오전 8시, 장지 신안 안좌면 선영. 062-973-9164
▲이낙일씨 별세, 한희진씨 남편상, 이준영(현대자동차 상무)·이은경·이선아씨 부친상 = 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20분, 장지 동화경묘공원. 02-3010-2000

2028 대입 위한 겨울방학 전략적 로드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흔히 말하는 선행학습이 중요하지만, 2028 이후의 대입 트렌드는 ‘진로와 전공 설계’가 선행학습과 병행해야 한다. 5등급제와 정시교과 평가 도입으로 인해 ‘성적의 양’보다 ‘성장의 질’이 중요해진 지금, 설계 없는 선행은 비효율적인 노력이 된다. 따라서 예비고1 학생과 학부모는 명확한 진로와 전공을 선택했다면, 이 겨울방학을 ‘고교 3년의 전략적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5등급제 시대의 필연…주도적 태도 기반, 세특 중심의 질적 경쟁이 핵심

2028 대입에서 등급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대학들은 학생부의 기록의 질,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에 담긴 학업역량과 진로 역량의 깊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대, 경희대, 건대 2028

시행안에서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평가를 하거나 교과전형에 교과세특 평가의 도입은 이러한 인과성(등급 무력화)과 세특 강화(모든 전형에 영향)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공적인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교과 개념 이해를 넘어, 배운 내용을 진로와 연계하여 융합하고 심화 탐구한 과정이 세특에 기록돼야 한다.

◆선행보다 중요한 ‘학교 환경 분석’ 설계
진로와 전공에 대한 선택을 완료했다면, 이제 이를 학교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이 겨울방학 동안 필수적이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입학 예정인 학교의 정보를 얻는 것이 이 설계의 핵심이다. 만약 2026학년도 공시적인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2025학년도 청체활동계획서(동아리, 자율 활동, 진로 활동)분석하고, 창체, 세특 활동 선행을 계획해 보자. 이러한 사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 절약과 탐구 역량의 극대화 할 수 있다.

◆지적 확장의 완성…수업 충실도와 전공 관련 선택과목 이수

이 설계의 최종 목표는 ‘자신만의 성장을 담은 학생부 기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제시한 전공별 이수 과목을 분석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수행평가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정에서 교과서 개념을 연계해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발전가능성을 증명하자. 독서 역량 또한 단순히 책을 읽은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전문 도서의 내용을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적 확장을 이룬 과정을 세특에 담아내야 한다.

결국 2028 대입에서 성공은 무작정 앞서는 선행학습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이해와 학교 시스템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로드맵 설계에서 시작된다. 이 전략적 설계는 내신과 세특의 질적 완성, 수능 역량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된다. 앞서 언급된 것 외에도 ▲내신 선행의 방향 설정 ▲선행 학습의 수능 역량 강화 기여도 ▲고1 3월 모의고사(중학교 전 범위) 복습할 범위 학습 등이다. 이제 예비 고1은 단순한 수험생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돼야 한다. 이 겨울, 진로와 전공 설계를 완료하고 고교 3년의 일관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USB진로진학연구소장

학폭 기록, 책임인가 낙인인가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을 둘러싼 격론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조진웅 씨의 10대 시절 범행이 알려지며 촉발된 논란은 이내 개인의 과거를 넘어 ‘어떤 청소년의 과거를 사회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구조적 물음으로 옮겨 붙었다. 교육 현장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의견이 갈리며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가 더해지는 모습이다.

가장 큰 쟁점은 형평성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범죄 이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거나 열람이 제한된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한다’는 소년법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올해 대입부터

는 모든 대학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의 폭력은 입시에서 문을 좁히고, 학교 밖에서의 범죄는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묘한 단층이 생긴 이유다.

이런 구조를 두고 “선도 효과 없는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조치를 통해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대학 입시라는 두 번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는 변화 가능성이 큰 시기인데, 과거의 잘못이 성인이 된 뒤까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은 회복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소년범죄는 기록을 지우면서 학폭만 남기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입에 반영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학폭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실질적 억제 장치가 없으면 ‘잠재적 가해’를 막기 어렵다는 논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라도 일정 수준의 책임 부과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입장 어느 하나가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 기록을 남기면 낙인이 되고, 남기지 않으면 예방 기능이 사라진다. 지금의 논쟁은 단순히 ‘학폭 가해자를 얼마나 제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피해자의 권리,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복잡하게 얽힌 난제다.

학폭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가 어떤 청소년을 ‘두 번째 기회’ 가능한 존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균형을 향한 끊임없는 점검과 조율 없이는 또 하나의 불신만을 남길 뿐이다.

논쟁의 초점은 기록을 남길지 지울지를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1일 (음 10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근다. 4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정상인가. 60년생 과대포장은 오히려 속 보인다. 72년생 거품이 사라지니 현실은 냉혹하다. 84년생 자녀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태 줘라.



37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49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6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3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된다. 85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 일을 성실히 마무리.



38년생 위기가 있지만 귀인이 도와준다.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연봉자랑 마라. 62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 74년생 좋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린다. 86년생 내가 좋아도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39년생 귀인을 만났어도 장기투자는 뒤로 미루자. 51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63년생 기회가 왔어도 실력 부족으로 놓친다. 75년생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날. 87년생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입단속 하도록.



40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52년생 이상보다는 현실을 보고 주관을 가지자. 64년생 힘들어도 추진해나가라. 76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다. 88년생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살피야 한다.



41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53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65년생 금전과 사랑의 운이 따르는 하루. 77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해야. 89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으니.



42년생 꽃피고 새가 우니 이제 행동할 때. 54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66년생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된다. 78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니 시간이 가면 서 크게 늘어난다. 90년생 바다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



43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는다. 55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67년생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니 부담이다. 79년생 초하루기도를 해보는 것도 풀리는 방법일 듯. 91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 날.



44년생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자기 할 일만 하라. 56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여 지니 실망은 금물. 6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겠다. 80년생 부족함은 조직원 간에 대화가 필요할 듯. 92년생 미운 놈 떡 하나 주니 심정.



45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간다. 57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생긴다. 69년생 미련은 버리는 것이 좋다. 81년생 자존감이 지나쳐서 직장 및 가족을 힘들게 한다. 93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을.



46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 힘들다. 58년생 목이 마르면 직접 우물을 파라. 70년생 가족들 서로 도우며 만들어 가는 것. 82년생 감정적으로 히로애락을 너무 드러내어 좋을 것이 있을까. 94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해보면서 정리.



47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 순조롭다. 59년생 믿음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 7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셔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83년생 삼재라서인지 뒤늦게 부모님 생각이 간절. 95년생 이사하고 나니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친다.



김상회의四季

진짜가 이상한 세상

전편의 리얼 베이비들은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리얼 베이비들 인기 사태는 미국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개당 약 8000달러(약 1천 1백만원)가 넘는 리얼 베이비들을 구매해 진짜 아기처럼 입히고 먹이고 재우며 애지중지 키운다고 하니 참으로 “가짜여도 괜찮아!”가 돼버린 세상이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 6월 성황리에 열린 ‘리얼 베이비돌 박람회장’에서는 아기 냄새가 나는 향수를 사서 뿌려주며 인형의 머리를 손으로 잘 받치고 안아줘야 한다고 충고하는 등 가상 육아에 폭 빠져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도하기도 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리얼 베이비들의 공공장소 반입 금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니 대부분 사람은 리얼 베이비들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혹자는 이 인형이 정신 건강을 치료하는데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를 사고로 잃거나 유산을 경험한 여성뿐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앓고있으며 치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도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든 반려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위안이나 유대감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베이비 돌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필자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생명이 없는 인형을 실제 아기인 양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과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는 식량 공급이 끊겼고 실제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지구상에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1		9		
				2				
		3	4		7	1		
	5						4	6
		2				7		
9	1						8	
		4	7		1	8		
				4				
		9		8	5			2

7			1	4	6			8
			8	5				
							6	5
							9	1
2								3
5	1							
9	8							
4					9	5	2	6

2	1	7	9	8	8	6	2	9
2	9	8	2	7	6	1	8	8
6	8	8	1	9	2	7	2	9
9	8	8	7	2	9	1	6	1
1	6	2	9	9	8	2	8	7
9	7	2	6	8	1	2	9	8
8	9	1	2	6	7	8	9	2
7	2	9	8	2	8	6	1	1
8	2	6	8	1	9	9	7	2

9	1	2	9	6	8	2	8	7
6	9	8	7	2	8	2	9	1
2	7	8	1	2	9	9	8	6
8	2	9	8	7	6	8	1	9
2	9	9	1	2	6	1	6	2
1	6	7	8	9	2	9	2	8
9	9	1	6	8	1	7	2	8
7	2	1	2	8	9	8	6	9
8	8	6	2	9	7	1	9	2

초등학교 1학년 ‘인성교육 집중학년’ 지정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운영
사회정서 역량 조기형성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 인성 함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런 내용을 담아 ‘공동체형 인성’을 핵심 가치로 한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서울지역 교원, 학부모, 학생 6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집단에서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인성교육과 가정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졌다”라며 “디지털 과의존과 유해 콘텐츠 노출 등으로 인한 학생 관계·정서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는 ‘초등 열두달 만나·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의 기초 인성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생 관계 문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 연계 인성교육도 확대한다. 설문에서 ‘가정’을 인성 발달의 핵심 요소로 꼽은 결과를 반영해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치구와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한 지역 연계 체험형 인성교육 과정도 개설한다. /이현진 기자

오승걸 평가원장, 수능 난도 논란에 사퇴

영어 1등급 비율 3.11% ‘최저치’
“입시에 혼란 초래… 책임 통감”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도 조절 실패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절대평가 취지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출제 책임을 둘러싼 공분이 고조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사진)이 사퇴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라며 “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 영어 난도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절대평가 체제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1만 5154명)로 나타나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저였던 2024학년도 4.71%보다 낮고, 상대평가 기준 4%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역대 가장 어려운 영어 영역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유감 한 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느냐”, “영어 한 과목 때문에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 성토가 이어졌고, 평가원 홈페이지에도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2040년도에 수능 전면 폐지하고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제안”

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제도’
융합형 미래인재 성장지원 체제

2028년도 상대평가 즉각폐지
2033년부터 5단계 절대평가
대입 단일전형으로 준비부담 ↓

서울시교육청이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입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기조에 맞춰 대입을 ‘학생 성장 역량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 ‘선발’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0년 고1부터 절대평가 준비

우선, 2028학년도 대입안에 포함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33학년도부터는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체제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2030학년도 고1부터는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창의력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비중을 ▲2027학년도 30% ▲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내용

	2028학년도 대입	2033학년도 대입	2040학년도 대입
적용	18세 2027년 45만명 적용 2025년 기준 고1 학생	18세 2032년 43만명 적용 2025년 기준 초5 학생	18세 2039년 27만명 적용 2025년 기준 5세
내신 평가	5등급 상대평가· 절대평가 병기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2030년 고1~ 적용) 서·논술형 평가 확대 평가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 시스템 구축	내신 절대평가 정착 서·논술형 평가 정착
수능	통합형 수능 과목 체제 5지 선다형 문항 중심 수능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서·논술형 평가 도입·확대 절대평가 전환 ※수능의 대입 영향 축소	고교 교육과정 중심 대입체제 정착 ※수능 폐지
전형 구조	수시·정시 분리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 (정시 30~40%) 폐지	수시·정시 통합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종료 후 11~12월 대입전형 실시)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학생 성장 역량 중심 대입지원 체계 정착
대학별 평가	(서울 주요대학) 고교 유형별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균형 전형 선발 확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개편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학교 교육과정 성취 중심 평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문제는행식범교과융합형면접, 서·논술형평가자율활용

자료/서울시교육청

그래픽/정민주 기자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30학년도 이후 과반을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전문 채점관 양성, 교원 연수 등의 기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40학년도엔 수능 폐지해야”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수능 개편안은 2033학년도부터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고력·탐구 과정 평가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형태다. 서·논술형 비중은 2033학년도 30%에서 시작해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채점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31학년도부터 고2 전국 단위 모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령인구 감소 시점인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신 학점 기반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와 학생 성장 역량을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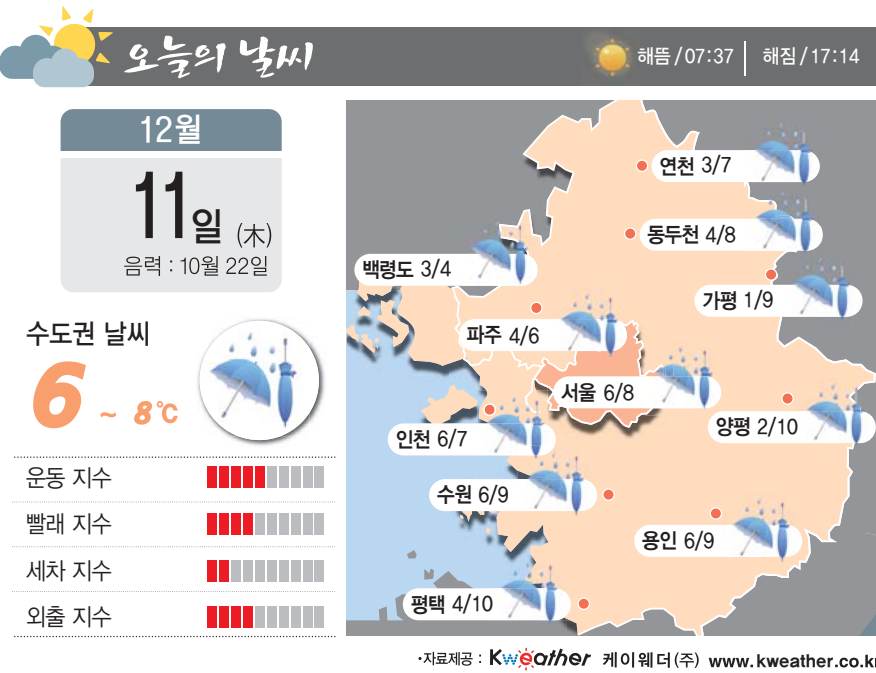
정 교육감은 “대학에는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는행식범교과융합형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시·정시 통합·대학 자율 확대

대입 전형 단일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부터 수시·정시를 단일 전형으로 통합해 이중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의 정합성을 높이는 제안이다. 대입 일정은 고3 2학기 내신평가 종료 후인 11~12월에 치르는 형태가 제시됐다.

대입 기본 구조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재편하고, 수능·면접·실기 등은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보조 요소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전형 확대,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 교육격차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적용돼 온 정시 비율(30~40%) 권고는 2028학년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상습 침수’ 대림1구역 재개발… 1026세대 공급

서울시, ‘신통기획 2.0’ 적용
주거환경 개선, 재난 예방 실현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정비 속도가 빨라진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 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

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선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美 트럼프 “연준 의장, 여러 후보 검토…내가 원하는 인물 있어”
▲中 항모, 日 훈수 근접 항해…日, 中무력시위 일상화 우려 /사진 뉴시스

▲인도, ‘운항 취소 대란’ 자국 최대항공사에 10% 운항 감축 명령
▲한-감 경찰, 범죄단지 급습 51명 검거…고문당하던 20대 구출

▲영국, 중소기업 2곳 제재…중국 “불법적·일방적 제재” 반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층 규모 건물 화재…임신부 포함 22명 사망



식품기업
외식브랜드로
성장한게 돌파
니

metro®

Life

무신사
메가스토어 용산
'O4O' 기술 도입
L2



화장하며 케어까지... 피부색 경계 넘어 '물광' 영토 넓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애경산업 '에이지투웨니스'

애경산업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의 '에센스 팩트'가 11년 연속 국내 파운데이션 부문 1위라는 브랜드 입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혁신 제품 에센스 팩트를 각 국가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제품으로 선보이는 등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2012년 에이지투웨니스를 처음 공개했다. 이후 2013년 9월 고체 파운데이션에 수분 에센스를 더한 '에센스 팩트'를 출시했다. 색조 제품인 파운데이션의 기능과 기초 제품인 에센스의 특징을 결합해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표방한 제품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에이지투웨니스 에센스 팩트는 수분 에센스를 60% 이상 함유해 물방울 형태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액체 제형과 파운데이션의 완벽한 커버력과 정교한 발림성, 에센스의 촉촉함, 쿠션 형태의 편리성까지 세 가지 장점을 하나의 제품으로 담아내면서 뷰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행동 분석 및 시장조사 기업 윌드패널 바이 뉴메라이터에 따르면,

에센스 팩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65세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내 파운데이션 구매량 조사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으로 국내 파운데이션 부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2025년 6월 기준, 단일 품목 누적 판매량 2억3000만개 돌파 기록도 대한민국 No.1 파운데이션의 위상을 입증하는 결과다.

기존 쿠션 중심의 국내 파운데이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었던 핵심 성장 요인은 에센스 팩트만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술력이다.

에센스 팩트에는 우선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에센스 포켓 기술'이 집약됐다. 애경산업은 해당 기술을 독자 구축하고 에센스 팩트의 핵심 성분인 에센스 함량을 60%로 시작해 77%까지 높이는 등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라마이드 코팅 파우더 기술'이 메이크업 지속력은 끌어올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모두 잡는 메가히트 제품이라는 제품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2가지 이상의 파운데이션 색상을 혼합한



1 2 에이지투웨니스 '에센스 팩트'
3 에이지투웨니스 '수퍼 액토인 프라임 파운데이션 팩트'

11년 연속 국내 파운데이션 부문 1위 고체 파운데이션에 수분 에센스 더해 발림성, 커버력, 촉촉함 팩트 하나에

2가지 색상 혼합 '라떼아트 기술' 적용 섬세한 커버·정교한 톤 보정 구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30개 국가서 판매 다인종 국가에 맞춰 20가지 컬러 선택 아시아 국가별 맞춤 제품으로 경쟁력



'에센스 팩트' 20가지 셰이드.

/애경산업

파운데이션 라떼아트 기술'을 적용해 섬세한 커버와 정교한 톤 보정을 구현하도록 하면서 시각적 차별화도 이뤄졌다.

에센스 팩트의 제품력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30개 국가에서 판매되며 글로벌 소비자의 파우치 속에 자리를 잡았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 내 K뷰티 편집숍 퓨어서울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 퓨어서울은 영국에 최신 K뷰티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채널로, 에센스 팩트는 런던, 카디프 등 영국 주요 도시에서 선보여지게 됐다. 다인종 국가 특성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가지 셰이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기존 6가지에서 20가지로 제품 호수를 늘려 피부색이 다양한 글로벌 소비자와 접점을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르프 라스베이거스 어워드' 메이크업&네일 부문에서 '에센스 팩트 인텐스 커버'가 1위를 차지했다. 코스모프르프 라스베이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전문 뷰티 전시

회로, 애경산업은 브랜드 기술력과 혁신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애경산업은 미국 최대 이커머스인 아마존에서 마케팅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본에서는 일본 전용 제품 '베일 누

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를 앞세워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일본인들의 데일리 베이스 메이크업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는 일본 뷰티 시장 내 선호 성분인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해 촉촉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일본 전역의 코스트코 오프라인 37개 전점과 온라인몰에 입점하며 일본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은 2022년 일본 주요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에이지투웨니스를 내놓으며 현지 시장 검증과 소비자 반응 확보를 거쳐 왔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서도 신제품 경쟁력을 높인다. '수퍼 액토인 프라임 파운데이션 팩트'는 파운데이션 밤 제형 속에 크림을 설계해 밤 제형을 굽으면 하얀색 크림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으로 설계됐다.

또 애경산업 독자 성분 '수퍼 액토인 프라임 베리어 크림' 성분을 처방해 극한 환경에서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한다. 열자극, 블루라이트, UVA, UVB, 초미세먼지 흡착 등 피부에 영향을 주는 5대 환경 자극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갖춘 미래형 차세대 제품이기도 하다.

기존 제품인 벨벳 래스팅 팩트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판매고를 올려 올해 3분기 턱톡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0% 커지면서 턱톡 내 8월의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1위로 우뚝 섰다.

아울러 애경산업은 올해 5월 중국 브랜드 홍보대사로 배우 연안을 발탁해 에이지투웨니스와 에센스 팩트가 추구하는 '감성과 감각을 만족시키는 뷰티'를 알리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에이지투웨니스는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과 제품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에센스 팩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가별 피부 톤·기후·문화를 최적화한 현지 전용 제품을 꾸준히 확대해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친정 토트넘 찾아 작별 인사 “이곳은 내 집”
▲‘케데헌’ 매기 강 감독 육관문화훈장...‘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사진 뉴스스

▲美 빌보드 싱글 연말 결산서 로제 ‘아파트’ 9위·‘골든’ 25위
▲홍명보, 월드컵 베이스캠프 후보 푸에블라 답사...“2100m 고지”

▲정명훈, 오는 30일 KBS교향악단과 “아듀! 2025”
▲에스파 윈터 측, 악플·루머에 법적대응 “고소절차 확대”

SK telecom

마음은 이미 로밍 중

T로밍 baro 요금제 하나면



다양한 멤버십 혜택
클럽 T로밍



에이닷 전화로
baro 음성통화 무료



온 가족 로밍 해결
가족로밍



0 청년 고객님
로밍 50% 할인

추가로 뭉치면 로밍 할인까지!

함께 로밍 이용할 친구 초대하면 나와 친구 모두 로밍 요금 1만 원 할인



프로모션 바로 가기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 기본 제공 | 가족로밍 요금제는 대표 회선이 추가 가입(3,000원)하면 최대 4명의 가족과 공유 가능(단, SK텔레콤 가족 결합 상품 가입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로 증명 필수) | 에이닷 전화로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 국가 외 발신 제외) | 클럽 T로밍 혜택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 가능 | 로밍 50% 할인은 baro 요금제 가입 후 로밍 데이터 사용을 시작한 시점에 0 청년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에만 제공 | 더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뭉치면 로밍 할인 프로모션은 T로밍 이벤트 페이지에서 생성한 그룹 코드를 친구와 공유, T로밍 그룹에 친구가 참여하면 친구 그룹 전원에게 로밍 요금 1만 원 할인 혜택 제공(2025년 11월 25일~12월 31일)



지금 에이닷에게 **[baro 요금제]**를 물어보세요.